

살기 좋은 무주 정천마을 된다

군, 15억7000여만원 투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취약한 마을환경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했던 무주군 안성면 정천마을이 앞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면서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된다.

11일 무주군에 따르면 안성면 정천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 실시계획 착수가 가능해지면서 11월 중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7천여 만 원(국비 10억6천여 만 원 포함)을 들여 안성면 정천마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위생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인다.

이로써, 그동안 취약지역으로 꼽혔던 안성면 정천마을은 마을안길 포장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기반 및 주택을 정비하고 노후 담장과 마을우물 등 마을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선진지 견학, 자치운영 컨설팅 등 주민역량을 강화해 생활 인프라가 충족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집수리 지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

인 사업 착공을 위한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앞서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정천마을이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정천마을 주민들이 재래식 화장실과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며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 물놀이 구역 현장점검

무주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물놀이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관련 적극 행보를 보였다.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는 지난 9일 오후 무주읍 후도교를 비롯해 설천면 지전마을, 부남면 하굴지구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행했다.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는 지난 9일 무주읍 후도교를 비롯해 설천면 지전마을, 부남면 하굴지구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행했다.

하면서 군 관계자들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행했다.

이날 김 부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이들 대상지를 찾아 안전관리요원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살폈다.

그리고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현황을 체크하고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물놀이를 피하고 안전한 지대에서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날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1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군은 무주군 재난상황실에서 안전재난과 관계자를 비롯해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 자율방재단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 및 방역 협의회'를 열어 사고 없는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김희옥 부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과정에서 잠시 방심한 상태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며 "군은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물' 오픈 준비 착착

진안군은 오는 9월 중 지자체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의 오픈을 위해 11일부터 입점농가 및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상세페이지 제작에 착수했다.

이날 진안군 농촌경제국장 등 군 관계자와 제작업체 누비온은 동반출장을 통해 진안읍 소재 입점대상 업체 5

개소를 방문해 인터뷰 및 촬영을 진행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페이지 제작에 나섰다.

군은 현재 30여 농가·업체 90여 가 품목과 농산물을 입점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상세페이지 제작 중으로 상품소스개발만 아니라 생산자와 생산과정까지 한눈에 간추린 화면으로

고객의 관심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진안고원물의 2차 입점신청은 8월 중순까지이며, 9월 하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계절 전략상품 및 신선채소 등 품목 다양화를 통해 농가 및 업체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애플수박 소비자 선호도 ↑

높은 당도·간편한 섭취로 장수군 소득작물 자리매김 기대

장수군이 신(新)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인 미니(애플)수박이 본격적으로 여름 과일 틈새시장에 뛰어 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2019년 시범재배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했던 장수 애플수박이 올해는 예년보다 수확량이 늘어 장수군 지역 내 농업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애플수박은 1인 가구의 소비기호에 맞는 미니수박으로 일반수박의 1/4 크기이며, 껍질이 얇아 꺾기에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적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애플수박 현장 평가회에서 검증한 결과 장수군 애플수박은 당도 13브릭스(Brix)로 일반 수박 평균

당도 10~11브릭스(Brix)에 비해 높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미래 장수군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수군에는 30ha의 면적에서 수박이 재배되고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애플수박 생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와 김인주 과장은 "장수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애플수박뿐만 아니라 활죽을 활용한 감자 재배, 신종종 메론 등 다양한 품목의 재배와 연구사업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2회 휴장

진안군은 11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4, 19일로 예정된 고추시장을 2회 휴장할 계획이다.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은 매년 8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장남(4, 9일 남)마다 약 15회 정도 운영하며, 진안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장 가격을 주도해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진안 고추는 일교차가 큰 고원에서 재배돼 다른 지역 고추와 달리 독특한 향기와 색깔이 짙고 열매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진안군의 특산품이다.

군은 19일 이후의 고추 시장도 코로나 확산 여부를 주시한 후 개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돌발해충 확산 방지 위해 공동 방제 추진

무주군은 과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감색날개매미충)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오는 8월 말까지 공동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실이 본격 열매를 맺는 시기인 8월 들면서 돌발해충의 확산방지와 사전 방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1일까지 사업비 8,960만 원을 들여 1,499 농가 1,004.5ha 대상으로 돌발해충 공동 방제 사업에 나서고 있다.

대상 작목은 사과를 비롯해 배, 블루베리, 복숭아, 오미자 등 8종에 이르며, 7종의 약제를 투입해 사전 돌발해충의 확산방지를 꾀한다.

돌발해충은 5월에 부화하여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를 음병 피해를 주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시범사업 완료

진안군은 11일 관내 마을회관 및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어진 지 오래된 마을 회관 중 출입구가 높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 인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이동 등 이동 약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진안군은 관내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4개소를 선정하고, 예산산 2,000만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3개소와

소규모 공공이용시설 1개소에 출입구 경사로와 핸드레일 설치를 완료했다.

사업대상지인 상전면 원가막마을 주민들은 "순잡이(핸드레일) 없이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안했는데, 경사로와 순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해주어 마을회관 이용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지역을 다닐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장애물 없는 진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2개 의원연구회 결성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국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2개의 의원연구회를 결성했다.

군의회는 금년도 3월에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처음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지역의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이에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

또한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진안 곳곳에 산재해 있는 산약초타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국립지력권 산림치유원을 연계한 '진안고원 산림문화 휴양벨트' 조성사업 구상 등 진안고원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문화휴양벨트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두 연구용역은 지난 7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워크숍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역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